

압착에 의해 파손된 종실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름의 품질에서도 개화 후 44일째 수확된 종실에서 추출된 기름 중에 클로로필의 함량이 29.9%나 되어 지방의 품질이 매우 열악하였고, 개화 후 52일이 지나야 에테르 추출물기준 클로로필 함량이 1% 이하로 낮아졌고, 54일 이후에는 양호한 품질을 보였다. 지방의 조성에서도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식용이나 바이오디젤용으로 별로 달갑지 않은 포화지방산(C20:0과 C22:0)의 함량이 줄고 대신 불포화지방산(특히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유채의 품질은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화 후 54일

이후(남부지방에서 6월 9일경)에 수확해야 하고,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한 수확적기는 개화 후 59일 무렵(6월 14일경)이다. ㉞

남부지방에서의 유채 수확시기에 따른 추출지방의 외관 품질



개화 후 44일 (5월 30일)	개화 후 49일 (6월 4일)	개화 후 52일 (6월 7일)	개화 후 54일 (6월 9일)	개화 후 59일 (6월 14일)
-------------------------	------------------------	------------------------	------------------------	-------------------------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0년 5월호〉

중량물 작업 안전관리

이 경 속 농업재해예방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작업의 특성상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은 모든 작목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중량물 작업)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농업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타박상, 골절은 물론 장기적으로 심장혈관의 긴장, 근육의 피로, 근골격계 질환(특히 요통)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중량물 작업을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들어올리기, 내려놓기, 운반하기,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표1).

표1. 올바른 작업 자세

구분	올바른 작업 자세
무게중심	• 중량물에 몸의 중심의 가깝게 한다.
발의 위치	• 발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무릎	• 물체를 들어 올릴 경우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무릎을 굽히도록 한다. • 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무릎의 힘으로 일어난다.
손	• 가능하면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는다. • 다루는 물체에 적절한 모양의 손잡이를 설치한다.
척추	• 목과 등이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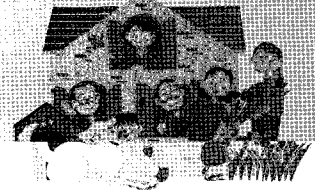
작업 자세와 더불어 중량물 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 작업시간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다(표2).

표2. 중량물 취급 시 유의사항

구분		주요 기준
취급중량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작업은 30kg 이하로 한다. • 장기간 작업은 제중의 40% 한도내로 한다.
시간	작업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작업은 20분 이내로 한다. • 운반거리는 2km 이내로(4m× 500회) 한다.
휴식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한다.
체조	작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부분을 중심으로 체조를 실시한다.

중량물 작업은 농작업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작업으로서,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원인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이 위의 안전 지침에 따라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작업방식을 개선한다면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차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0년 5월호)

45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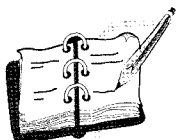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곳곳하게 맥을 이어온 45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794@chol.com,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1394-01-000536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